

韓族의 滿洲(특히 間島)移住에 대하여

- 19世紀 中期까지의 略史와 研究의 問題點 -

全 海 宗

— 목 차 —

- I. 머 리 말
- II. 夫餘·高句麗·渤海의 民族起源에 관하여
- III. 朝鮮朝 初期까지의 移住
- IV. 朝鮮 中期에서 19世紀 中葉에 이르는 時期의 移住
- V. 1880년 前後의 韓人의 間島居住

I. 머 리 말

古代로부터 19世紀 中期까지의 韓族의 滿洲(中國에서는 보통 東北이라고 함)에의 移住 또는 入境에 관하여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로 古代의 滿洲地方에는 夫餘·高句麗·渤海 등이 盛衰하였다는 점이다. 韓國의 史學者들과 日本의 학자들도 이들 國家가 韓族의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렇다고 하면 韓族의 滿洲 入住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 이 연구는 1992년도 교육부 지역연구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國家를 세운 한족은 한반도에서 滿州로 移住한 것인가 또는 滿州도 그 原住地의 하나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韓族의 原住地에 관한 문제가 提起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韓族의 원주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近來에 中國의 學者들은 이들 國家의 民族起源에 관하여 韓族과의 관련을 否定하거나 매우 消極的으로 보려고 하는 점에 있다. 本稿의 第2節에서는 그와 같은 中國의 學者들의 代表的인 見解를 소개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들 古代國家가 興亡한 後에는 滿州에 韓族의 國家가 세워진 일은 없으며 韓人의 산발적인 滿州 入境 또는 入住가 행하여진다. 高麗時代에서 朝鮮朝 初期까지 그 例가 적지 않으나 間島, 즉 延邊地方에 대한 入境은 당시의 朝鮮과 滿州의 情勢로 보아 不可能한 일이었다. 이 時期를 韓人의 滿州 移住의 第1期라고 보고 本稿의 第2節에서 그 實例를 略述하려고 한다.

朝鮮朝 中期, 즉 中國의 明末清初의 時期에는 滿州의 遼東地方 뿐만 아니라 延邊地方에 대한 入境도 상당히 활발하였고 특히 19世紀의 中期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다만 이 時期의 朝鮮이나 淸의 政府의 公的 立場은 韓人의 滿州 入住를 禁止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연한 入住는 있을 수 없었고 이에 관한 文獻도 없다. 그러나 民間人이 官의 許可 없이 몰래 越境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이것을 犯越이라고 불렀다. 犯越하여 淸의 官邊에 발각되지 않으면 물론 淸의 領內에 居住하였을 것이나, 발각되면 送還되어 梟首까지 당하는 處罰을 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

淸側은 犯越者를 발견하면 이를 逮捕하고 이에 관하여 朝鮮側에 文書로 通告하며 兩國의 交涉이 시작되며 犯越者는 送還된다. 1件的 犯禁에 관한 交涉과 事後 處理는 여러 해에 걸치는 일이 많았고 그 往來文書도 여러 篇에 이른다. 그런데 多幸히도 이들 文書가 잘 保管되어 「同文彙考」에 실

려 있다. 本書의 內容年代는 仁祖 年間에서 시작되어 1880年代 初까지 이르며, 이것은 바로 韓人의 滿州 移住의 第 2期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同文彙考는 部分的으로만 이용되었는데 本稿 第 4節에서 그 방대한 기록 중에서 犯越에 관한 중요한 實例를 뽑아서 犯越의 實態를 理解하고 移住 問題를 推論하려고 한다.

끝으로 第 5節에서 間島의 각 地方別로 韓人의 移住地, 朝鮮의 出身地, 移住 年代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II. 夫餘·高句麗·渤海의 民族起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말하여 從來로 韓國이나 日本의 學者들이 高句麗나 渤海 또는 夫餘의 種族에 대하여 비록 細部的으로는 差異가 있어도 韓族과 같은 起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왔다. 그런데 近來에 高句麗와 渤海 그리고 夫餘의 民族 起源에 관한 中國의 學者들의 關心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見解는 거의 一律的으로 韓族과의 同源에 대하여 否定的이다.

여기서 그들의 族源에 대하여 詳論할 필요는 없고, 다만 中國의 學者들의 그에 대한 見解를 例示的으로 들어서 韓族의 滿州 특히 延邊移住에 대한 考察에 있어서 먼저 解決하여야 하는 問題가 있다는 點을 指摘하여 두려고 한다.

中國의 學者 중에서 특히 이 方面에 상당한 研究를 남긴 孫進己와 王健群의 見解를 紹介하려고 한다. 王健群은 廣開土王碑의 研究로 잘 알려져 있으며, 孫進己도 많은 著述을 발표하고 있는데 東北, 즉 滿州地方의 歷史上의 여러 民族의 源流에 관하여 「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 1989)에서 簡明하게 敘述하고 있어서 여기에 먼저 그의 見解를 紹介하려고 한

다.

그는 夫餘족의 源流에 관하여 「夫餘族은 濊貊系의 하나의 비교적 큰 民族이며 또한 濊貊系 중에서 가장 일찍 形成된 民族(古代民族)이다」(이 책, p.125) 라고 하였다. 濊貊系에 대한 그의 見解는 뒤에 言及하겠다. 그는 三國志 東夷傳에 引用된 魏略의 記事, 즉 論衡吉驗篇의 東明說話를 들어 이것은 고리국에서 夫餘에 가서 王이 된 것은 東明이라는 個人이며, 이 說話에 信憑性이 있다고 하여도 夫餘王室의 起源이 「고리」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전체 夫餘족이 「고리」에 起源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p.127).

그는 濊貊에 관하여 종래로 이것은 하나의 統一된 民族이라고 보는 日本이나 一部 中國인들의 見解(그는 文崇一을 朝鮮의 學者라고 指稱한 것은 錯誤-p.114)에 반대하여, 濊와 貊은 兩族으로서 합하여 濊貊으로 通稱할 수 있으나, 濊와 貊을 混合하여 同族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濊와 貊은 單一 民族이 아닐 뿐 더러 여러 民族의 複合體며 그 族源도 單一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p.118), 특히 濊貊 중의 貊은 東胡·室韋 등과 同源에 속하고, 濊 系統은 東北地區의 土着民으로서 이것은 考古學的으로 說明이 가능하다고 하였다(p.123). 夫餘民族과 濊貊의 關係를 요약하면 統治 民族으로서의 貊人和 被統治民族으로서의 濊人이 融合하여 夫餘의 經濟와 習俗의 複雜性을 이루었다고 한다(p.129).

다음에 高句麗의 族屬에 대한 見解로서 孫進己의 論點은 주로 두 가지다. 하나는 征服民族으로서의 高句麗인의 族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高句麗의 모든 成員의 種族에 관한 것이다. 前者에 관하여 그는 「상당한 대부분」이 濊人(특히 pp.139-140)이라고 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濊人은 東北의 土着民이라는 것이다.

後者の 論點에 대하여 그는 韓族과의 融合으로 初期에 征服된 遼東郡의 漢人, 樂浪郡을 征服하였을 때의 漢人, 그 후 누차에 걸쳐서 高句麗에 征

服되어 捕虜가 된 漢人, 隋末에 高句麗에 出軍하였던 漢人들을 學論하여 이들 漢人和 高句麗인의 融合을 말하고 있다(pp.141-142). 그러나 肅慎系와는 文化的 差異가 크기 때문에 肅慎系는 高句麗인에 融合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王健群은 「高句麗族屬探源」(「學習與探索」, 1987年 6期)이라는 짧은 論文에서 孫進己와 部分的으로 다르나 大同小異한 見解를 提示하고 있다. 즉, 그는 高句麗族은 濊貊族으로서, 貊 또는 濊貊은 濇구스族과 가깝거나, 또는 다르다고 하여도 그 住居地가 「韓半島 北部의 濇구스족」과 近接하여 歷史上으로 자주 이들과 混淆되었다고 前提하면서, 結論적으로 「高句麗는 夫餘에서 나왔으며, 夫餘는 肅慎계통의 濇구스族, 즉 後日의 女眞族으로서, 高句麗인은 당연히 肅慎人의 後裔이며 女眞進人和 同一한 族屬」이라고 하였다. 그의 論斷에는 어떤 文獻上 또는 歷史的인 論證이 없어서 臆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筆者의 「東北(滿州)史에 대한 中國에서의 研究」(「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 29輯, 1990)에서 指摘한 바 있다.

渤海에 관하여 孫進己는 渤海의 大氏의 族屬이 渤海족의 중요한 成分이기 때문에 渤海의 來源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어떤 하나의 家族의 族源이 全體 民族의 族源을 代表할 수는 없고, 大氏가 「肅慎人이든 혹은 高麗인이든」 그것이 渤海 民族의 主源을 決定할 수는 없다(p.164)고 하며, 渤海族의 形成에는 세 系統이 있는데 濊貊系의 粟末 靺鞨과 夫餘 靺鞨 및 高句麗族의 系統, 漢族 系統, 肅慎族의 系統 셋인데, 肅慎系의 各族은 基本的으로 渤海民族 속에 融合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p.165). 위에서 夫餘와 高句麗 및 渤海의 民族의 起源에 관하여 孫進己와 王健群의 見解를 紹介하였는데, 그 밖에도 이 問題에 관한 中國의 學者들의 論考가 있으며 그들의 見解의 展開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으나 結論에 있어서는 共通點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위의 세 民族의 族源은 韓半島 民族의 起源과 다르거나 혹은 部分的인 關聯이 있다고 하여도 그 關聯은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또 中國의 朝鮮族 學者들은 이 問題에 대한 明白한 言及을 피하고 있는듯 하다. 中國朝鮮民族史研究所의 金元石 主任의 「中國朝鮮族의 遷入史에 대한 研究」(『東亞研究』 第25輯,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92刊)에서도 1840年代 以前의 時期의 韓人의 移住에 대한 言及이 있으나, 「中國의 少數民族으로서의 …… 朝鮮族이 中國에 遷入한 特定한 歷史時期의 研究」라고 前提에서 夫餘·高句麗·渤海 등에 관한 言及은 없다.

한편 延邊大學의 朴昌昱 教授의 「中國朝鮮族의 歷史和民族區域自治의 實施」(『朝鮮族研究論叢 2』, 延邊大學 民族學研究所 編, 1989)라는 論文의 序頭에서 朝鮮 民族과 그 祖上이 中國에 도착한 歷史는 「高句麗族이 東北地方에서 자취가 끊어진 후에 시작된다」고 간단히 言及하고 있는데, 이것은 高句麗族을 朝鮮族과 同族임을 認定하는 것이라고 믿어지나 그 以上의 敘述은 없다.

延邊地方에 局限하여 생각할 때에 夫餘나 高句麗의 影響力이 이 地方에 까지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渤海의 경우 그 遺跡은 물론하고 最近에도 遺物이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延邊地方에 있어서의 韓族의 問題를 考察하는 경우에 渤海의 族源에 관한 問題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問題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III. 朝鮮朝 初期까지의 移住

夫餘·高句麗·渤海가 興亡한 후의 韓族의 滿州 移住에 관하여는 대체로 세 時期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元代로부터 明初에 이르는 時期와, 明末清初에서 19世紀 中期에 이르는 時期, 그리고 19世紀 末期에서 20世紀 前半 2차 대전의 시기까지인데, 이 세제의 시기는 다시 朝鮮의 國權喪失을

전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 言及한 朴昌昱氏는 朝鮮族의 滿州遷入의 時期를 위와 같이 三分하고 있는 것은 妥當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 두 時期의 遷入者들은 극히 一部分을 除外하고는 絶對多數가 他民族에게 同化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앞의 論文 pp.1 - 2). 특히 金元石氏는 「中國 朝鮮族」이라는 前提에서 처음 두 時期는 遷入史에서 問題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本稿는 韓族의 滿州에 대한 移住의 問題 중에서 특히 19世紀 中期까지의 移住, 특히 延邊에 대한 移住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三期中 처음의 二期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第一期는 高麗時代의 大部分의 期間과 朝鮮時代 初期에 해당되는 時期이며, 高麗時代는 물론하고 朝鮮時代 初까지 그 版圖의 東北部는 지금의 延邊地方과 멀리 隔離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延邊地方은 主로 女眞族의 住地이며 未開拓의 地域이었기 때문에 韓族의 移住와는 관련이 없던 地域이다. 高麗의 太祖時의 版圖는 물론하고 12世紀 初에 尹 瓘이 九城을 築城하였던 바, 비록 九城의 位置에 관하여는 異說도 있으나 대체로 지금의 咸鏡南道 咸興에서 咸鏡北道 南部의 吉州 地方에 걸친 地域에 位置한 것이었다. 그나마 女眞族의 압력으로 九城에서 철수하였었다. 高麗의 末年에 李成桂가 吉州에서 野人을 擊破한 일이 있고, 朝鮮朝 初期에 建州衛의 猛哥帖木兒는 한때 五音會(會寧이라고 함)에 本據를 두었고, 咸鏡北道의 北邊에는 15世紀 後期까지 一部 女眞族이 居住하고 있었다.

따라서 移住의 第一期에는 東北方에서 지금의 延邊地方에 대한 移住는 거의 不可能하였다. 그러나 西北方으로 鴨綠江을 건너서 遼東과 그 밖의 地方으로 移住한 例는 적지 않다. 단순한 移民이라고 하기 보다는 戰爭關係의 捕虜 또는 中國측의 兵力 要求 등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例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遼의 聖宗 統和 29年(1011)에 高麗를 征服하여 (이른바 契丹의 第

二次 高麗 侵寇) 渤海戶를 捕虜로 잡아가서 歸州에 두었다(『遼史 卷 38 地理志二 東京道). 渤海戶는 高麗에 歸屬하였던 渤海의 遺民이라고 믿어지며, 이 侵入에서 契丹軍은 開京에 侵入하여 심한 放火와 掠奪을 하였으나 결국 慘敗하고 돌아갔으나 捕虜를 이끌고 갔다.

(2) 遼의 聖宗의 開泰年間 (1012-1020)에 여러번 高麗에 侵入하여(契丹의 第三次 侵寇) 高麗의 捕虜를 데리고 가서 高州 三韓縣(지금의 內蒙古 赤峰 東南)에 5千戶를 두었다(同書 卷39 地理志三 中京道).

(3) 高麗 高宗 18年(1231)에 蒙古軍에 降服한 일이 있는 洪福源이 1233년에 40여 城을 이끌고 蒙古에 가서 投降하였다(元史 卷59, 地理志 11, 瀋陽路).

(4) 元의 至順年間 (1330-1333)에 元의 安撫高麗軍民總管府의 管轄下에 5,183戶에 이르는 高麗人이 있었다(同上).

(5) 高麗 恭愍王 3年(1354) 7월에 柳 濯 등 40여인이 軍士 2千을 이끌고 元에 가서 같은해 11월에 당시 燕京에 있던 高麗人 2萬3千人과 같이 張士誠의 叛亂을 진압하려는 元의 征伐軍의 先鋒이 되었다(高麗史 世家 卷38, 恭愍王 3年).

(6) 高麗 恭愍王 8年(1359) 11월에 遼陽·瀋陽地方의 流民이 來投한 일이 있는데, 이 보다 앞서 鴨綠江의 越便에 居住하던 高麗人도 元의 兵亂 때문에 歸國하였다(同上, 恭愍王 8年).

(7) 13世紀 末부터 14世紀 前半에 걸쳐서 元으로부터 高麗人을 刷還한 일이 28次나 있었다.

(8) 朝鮮 太宗 2年(1402)에 遼東人 男女 90名이 義州에 도망하여 오고 또 民間人 150戶가 떼를 타고 渡江하여 왔는데(太宗實錄 卷3, 1402, 3月14日 丁酉), 이들은 高麗人으로 本來 「나라를 背反하고」 中國에 갔던 사람들이다(同上 卷3, 1402, 4月1日 癸丑 및 3日 乙卯).

위에서 11世紀 初에서 15世紀 初까지 즉 渤海의 滅亡 後 朝鮮 初까지

韓人이 中國에 移住하였던 例를 들었는데, 비록 記錄上 그 回數는 많다고 할 수는 없어도 各 時期에 걸쳐서 移住者가 있었고 그 人數도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韓人의 滿州 入居와는 반대로 中國人이 韓半島에 來住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한번에 많은 人員이 온 것은 漫散軍의 경우인데, 그 中에서도 太宗 2年(1402)에는 林八刺失里는 18,600戶를 이끌고 온 일도 있다(太宗實錄 卷3, 1402, 5月7日 乙丑).

IV. 朝鮮 中期에서 19世紀 中葉에 이르는 時期의 移住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朝鮮朝 初期까지는 지금의 延邊에 대한 移住는 거의 不可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移住는 朝鮮 中期以後의 일이며, 實際로 移住에 關한 實例를 文獻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本稿가 意圖하는 가장 重要的 目的도 앞에서 말한 第三期의 移住의 前史로서 이 時期, 즉 第二期의 狀況을 살펴보고 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 時期의 移住에 대한 考察에 있어서 미리 言及해야 할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로 史料에 關한 問題다. 本來 延邊에 대한 韓人의 移住는 官의 主導下에 政策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民間의 自發的인 移住였기 때문에 官邊爲主 또는 政治爲主의 從來의 記錄, 즉 朝鮮王朝實錄등 文獻에서는 移住에 關한 一般의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朝鮮이나 淸이 다 같이 越境을 禁止하고 있었기 때문에 越境이 發覺되고 政治問題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記錄化될 수 있었다. 즉 越境의 禁止를 어기고 「犯越」하였을 경우에 記事化되었다.

그러나 實錄의 경우에 모든 犯越이 記錄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內憂나 外患이 심한 時期, 즉 例를 들면 地方의 叛亂이나 邪教의 問題, 外勢의 侵入 등의 境遇에는 그러한 記錄이 더욱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實錄의 記事의 未備를 補充할 수 있는 것이 「同文彙考」다. 從來로 이 問題를 考察하는데 있어서 同文彙考가 部分的으로 利用되기는 하였으나, 本書야말로 이 問題의 考察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資料라고 할 수 있다. 同文彙考의 「犯越」의 項目은 바로 移住者가 發覺되었을 境遇에 關한 朝鮮과 淸의 交涉의 始末을 記錄한 것이다.

犯越이라는 項目 外에 同文彙考에는 「疆界」「漂民」 등의 項目이 있어서 이들이 移民 問題에 關聯되는 境遇가 있다. 그러나 本書는 主로 兩國間의 來往한 文書를 收錄한 것이기 때문에 그 點에서의 未備를 補充하는 것이 實錄이나 承政院日記·日省錄 등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는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 時期의 韓族의 移住는 現在の 「中國朝鮮族」과 無關하다는 見解에 關한 問題다. 그들이 現在の 中國 朝鮮族과 無關하거나 部分的으로 다른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을 韓族의 滿州 移民史에서 除外할 수는 없다. 앞에서 言及한 金元石氏의 論文에서 提起한 中國 河北省과 遼寧省에 居住하는 이른바 「朴氏居民」에 대하여 金氏는 그들의 移住의 時期와 漢化의 정도를 문제로 朝鮮族의 範疇에 넣을 수 없다고 斷定하고 있으나(東亞研究 第25輯, pp.214-215), 예컨대 朴氏가 스스로 그 姓을 「푸」라고 發音하지 않고 「표우」라고 한다는 점에서 漢族이 아님이 분명하며 韓族起源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韓族의 移住史의 觀點에서는 그들을 論外로 할 수는 없다.

세째로 朝鮮人의 移住와 朝鮮族의 歷史 初期가 1840年代에 시작된다는 見解에 關한 問題다. 金元石씨는 그 論據로 淸의 封禁令의 점차적 緩和 및 朝鮮의 鎖國政策의 漸次的 解除와 淸·朝鮮兩國의 地方官吏와 官兵의 默認 등등을 들고 있는데(같은 책 pp.217-218), 그 論據에는 首肯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淸은 1850年代의 內亂과 英·佛軍의 侵入 등으로 滿州의 封禁을 엄중히 할 實情이 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韓族의 移住에 影響을

줄 수는 없다. 中國내의 河北省이나 內蒙古地方의 朝鮮人이 遼東이나 延邊地方으로 遷住한다는 뜻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朝鮮族의 歷史의 始作은 그 以前으로 遡及하여야하는 結果가 되며 이것은 矛盾을 일으킨다. 朝鮮의 鎖國政策의 實施 年代가 大院君의 執政 이후인 까닭으로 1840年代까지 遡及시켜서 이 問題를 논할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地方官兵의 默認이라는 점은 이 時期에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뒤에 列舉하는 實例를 보더라도 이 점을 理解할 수 있다.

네째로 朝鮮의 鎖國政策과 1870年경의 北部地方의 凶年이 滿州移住에 影響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筆者도 首肯하는 바이기는 하나 從來로 지나치게 이 점을 重大視한 傾向이 있다. 즉 犯越者에 대한 處罰은 鎖國政策을 實施하기 前이나, 또 1876年의 韓日修好條約의 締結로 鎖國政策이 止揚된 後에도 마찬가지로 嚴重한 것이었음은 實例로써 알 수 있다.

1870年, 즉 丙午年의 凶荒은 論者들이 자주 言及하는 바이지만, 이미 그 前에 凶年이 繼續되었다. 즉 哲宗年間(1850-1863)에도 咸鏡道 地方에 數次의 天災와 凶作이 있었으며, 특히 高宗 4年(1867) 즉 庚午年의 數年 前에도 「連年の 凶作」(同文彙考 原續篇 犯越二 丁巳(1867), H省錄과 承政院日記 같은 해 3月21日 等)이라고 하는 記事가 보인다. 그런데 事實은 凶作 뿐만 아니라 앞의 凶作의 記事에 이어서 課稅의 倍增과 調兵의 過重을 들고 있다. 같은 해 11月에도 咸鏡道에 대하여 犯越과 관련하여 稅役의 減免을 下敎(H省錄 같은 해 11月 23日)하였고, 1870年(庚午)에는 咸鏡道の 各地에서의 煩雜·苛酷한 徭役에 대한 明細報告에 따라서 賑恤한 일이 있다(H省錄 같은 해 7月 24日). 이와같이 凶作, 饑饉과 아울러 租稅·搖役 등의 過重한 負擔이 犯越에 크게 作用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다음에 이 第二期의 移住와 그 밖의 延邊 入境에 關하여 同文彙考를 中心으로 年代順으로 그 例를 들겠다. 人員數가 많은 境遇와 人員이 적다

고 하여도 特殊한 境遇는 言及하졌고, 咸鏡道에서 延邊地方에 入境한 境遇를 主로 하고 러시아領 및 遼東에 들어간 境遇도 一部 包含한다.

(1) 1637年 丙子胡亂때의 많은 捕虜가 瀋陽에 가서 그 후 刷還 또는 逃回하였으나 一部는 現地에서 結婚등으로 殘留함(瀋陽狀啓 1637(丁丑), 1638(戊寅)以後의 狀啓에 散見됨).

(2) 1639年 狩獵하기 위하여 越境한 訓戎人 및 慶源人 12名이 還送됨(同文彙考 別篇 卷3 犯越).

(3) 1642年 瀋陽의 昭顯世子 一行의 糧穀을 自耕하기 위하여 農軍 男 140여名과 女 45名이 入居(仁祖實錄 卷43, 1642年 4月 4日 및 瀋陽狀啓 壬午年 6月 8日).

(4) 1642年 採蓼犯越人 45名을 處罰(同文彙考 別篇 卷3 犯越).

(5) 狩獵을 위하여 寧古塔(寧古塔 將軍의 管轄內를 뜻함. 以下同)에 入居하여 中國人家에 있던 男 2人과 女 1人을 1646년에 逮捕하여 3年後 歸還시킴(同文彙考 原篇 卷49, 犯越 1).

(6) 1648年 狩獵을 위하여 寧古塔에 간 12人과 11人 合 23人 中 1人은 逃亡하고 22人을 逮捕하여 送還(同上).

(7) 1652年 採蓼하기 위하여 越境한 10人을 淸이 逮捕하여 조사(同上).

(8) 1653年 越境하여 採蓼한 劉春立 등 23人에 대하여 朝鮮이 그 一部는 絞刑에 處하고 一部는 減罪(同上).

(9) 1654年 90人이 渡江하여 伐木(同上).

(10) 1661年 義州人 1人이 淸에 投降하였다가 送還됨(同上 卷50, 犯越2).

(11) 1666年 風疾病을 假裝하고 越境한 「歲靑尼利」라는 이름을 自稱한 者를 送還(同上).

(12) 1666年の 記事. 恩明에 살고 있으면서 紅賢에 있는 親戚을 찾아서 1665年 3月에 집을 떠나서 길을 잃고 같은 해 11月에 遼東 鳳凰城에 이르러 淸側에 잡힌 女人 1人을 다음해 2月에 送還(同上). 恩明·紅賢 등 地名

은 原文에서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길을 잃은 女人이 쉽게 遼東에 갈 수 있었다는 事實로 當時에 越境하여 來往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13) 1886年の 記事. 咸鏡道 三水郡人 31人이 越境 採蔘하다가 一部는 淸側の 화살에 맞아 죽고, 남은 사람 27人이 還送되었는데 朝鮮이 이들을 處罰하고 그것을 淸에 알림(同上 卷51, 犯越 3). 이 原文은 5千餘字의 長文이다.

(14) 1699年 凶年으로 越境하여 求食하던 男女 3人이 寧古塔에서 送還됨(同上 卷 52, 犯越 4). 朝鮮은 이에 대하여 謝恩의 上奏文과 方物을 보내는 것이 常例였다.

(15) 1747년에 寧古塔에서 잡힌 女人 2名이 奉天, 義州를 거쳐서 送還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沙嗎尼와 邵外彬인데, 沙는 慶尙道 出生으로 慶興에 10年間 있다가 淸領으로 팔려 가서 李某와 結婚, 12歲가 되는 딸이 있고, 李某의 死後 다시 劉某와 5年 同居하다가 잡혔고, 邵는 漢城 出生으로 慶興에 10餘年 있다가 淸領에 가서 王某와 結婚하여 二子를 낳고 後에 다른 王氏와 再婚하여 또 二子를 낳았는데 官에 잡혔다(同上 卷56, 犯越 8).

(16) 1761년에 咸鏡道 三水府人 7人이 犯越하여 잡히고 2年後에는 犯越 採蔘한 23人이 잡혔음(同上, 卷58, 犯越 10).

(17) 1801年 犯越한 犯人 李某를 그 犯越한 地方에 보내서 梟示(純祖實錄 卷3, 1801年 8月 10日). 이와 같은 梟示의 例는 많다.

(18) 1805年 平安道民 6人이 鳥銃 등을 가지고 越境하였다가 잡혀서 還送(同上 原篇續 犯越 1).

(19) 1830년에 16歲의 剪髮僧이 凶年으로 乞食하다가 不注意로 琿春地方에 越境하여 8年後 寧古塔까지 갔으며, 1841년에 逮捕됨(同上). 이와같이 「過誤」로 越境하여 寧古塔까지 갈 수 있었다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當時의 淸側の 國境地方의 警備가 嚴하지 않았다는 事實은 우리나라의 官

邊記錄에도 明白히 言及되어 있다. 憲宗 13年(淸의 道光 27年, 1847) 봄에 朝鮮과 淸이 合同으로 平安道 滿浦 地方의 淸人들의 幕舍와 開墾地를 檢索한 일이 있다. 滿浦地方은 蓼과 金을 産出하여 淸人의 「匪徒」가 이곳에 와서 幕舍를 짓고 長期 滯留하며 採蓼, 採金하고 開墾하여 耕作하기도 하였다. 이 檢索으로 幕舍 40餘個所를 태워버리고 匪徒 50餘名을 逮捕하였다. 그런데 匪徒를 막기 위한 防守所가 朝鮮側에는 5리나 7, 8리에 하나씩 있는데, 淸측에는 160리에서 170리 떨어진 곳에 6, 7個의 防守所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淸의 匪徒가 쉽게 潛入한다고 指摘하고 있다(憲宗實錄 卷 14, 1847年 5, 9 및 그 前後의 日省錄, 承政院日記 등 參照).

(20) 1854年 開城府人 張某가 咸鏡道 三水府에 가서 長白山을 넘어서 越境하여 머리를 깎고 換服(淸人의 옷으로 갈아 입었다고 생각됨)하고 병어리로 假裝하여 乞食하다가 發覺되어 送還됨(同文彙考 原篇續 犯越 1).

(21) 1866年 10월에 慶源人이 여러번 逃走 越境하였으며, 한번에 15戶, 男女 75人이 越境한 일이 있다(同上 犯越 2).

(22) 1867년에 淸 禮部가 朝鮮國王에게 보낸 公文(同文彙考 原篇續 犯越 2 我國人, 이 內容은 日省錄과 承政院日記 1867年 3月 21日 以下の 記事에도 보인다)에서 越境에 관한 몇가지 內容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ㄱ. 1867年 1월에 朝鮮人 男女 2百餘名이 琿春河口 地方에서 車를 타고 東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 ㄴ. 러시아인이 朝鮮人 數千名을 불러서 러시아領 吉心河 地方에서 開墾에 從事하고 있다(咸豐 11年, 즉 1861年의 分界로 吉心河의 東界가 러시아領이 됨).
- ㄷ. 1865年의 淸의 地方官의 報告에도 朝鮮人 1千 數百名이 吉心河 地方에 모여 있었다.
- ㄹ. 이들은 淸人의 衣帽를 着用하거나 러시아인의 衣帽를 着用하고 있다.

나. 이들은 圖們江口 地方에 出入하였다.

비. 中國人도 數百名이 渡江하여 朝鮮에 入境하였다.

(23) 1867年 淸의 奉天 近處의 遊民들이 淸의 禁地 數百萬畝를 開墾한 것을 檢索하는 機會에 그 遊民들이 朝鮮의 邊境을 騷亂하게 할 憂慮가 있고, 또 朝鮮의 邊境民이 潛越하여 淸의 領地를 開墾할 憂慮가 있다고 하여 淸의 提議로 朝鮮의 官員이 共同으로 檢索하기로 함(同文彙考 原續篇 疆界 3, 日省錄과 承政院日記의 1867年 6, 9 및 7, 6 等 記事). 이것은 兩國 邊境이 相互 越境하여 土地를 開墾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暗示하는 것이다.

(24) 1869年 朝鮮의 咸鏡道 阿吾地民 19戶가 率家하여 러시아領으로 갔다(同文彙考 原篇續 犯越 2 我國人).

(25) 1870年 慶源府人 李東吉이 죄를 짓고 1853년에 越境하여 琿春地方에 18年間 있다가 家族과 같이 잡혀서 還送되어 李東吉 等은 梟示됨(同文彙考 同上, 承政院日記 1870年 11,24).

(26) 1871年 淸의 大規模의 檢索으로 咸鏡道에서 越境하였던 犯越者 合 511人이 送還됨(同文彙考 同上).

(27) 1880년 醫生으로 越境하여 醫術을 行하고 賣藥하던 朝鮮人 2人을 호송하던 中에 1人은 淸에서 逃走함(同上).

위에 든 例를 보고 綜合的으로 몇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同文彙考나 그 밖의 史料에 보이는 越境의 例는 大部分의 境遇가 犯越에 發覺되어 送還된 것이기 때문에 實際의 越境은 그 數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點이다. 年少者나 女人만이 越境할 수 있는 것은 公的 記錄에 보이는 바와 같이 滿州側의 防備가 허술하였기 때문이며, 故意가 아니고 本人도 모르는 사이에 越境한 일도 있다. 특히 22번의 경우와 같이 琿春에 隣接한 러시아領에는 越境한 數千名의 朝鮮人이 開墾에 從事하였고, 한번에 數百名이 中國領을 通하여 러시아領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記錄에 보이는 것은 實際로 越境한 數의 九牛一毛이라고 할 수 있다.

越境한 者의 大部分은 農民이었다. 越境하여 採蔘하거나 狩獵한 者, 그리고 酒商도 農民의 範疇에 屬한다. 많지는 않았으나 僧侶와 醫生도 있었다. 越境한 動機를 살펴보면, 採蔘이나 狩獵 그리고 伐木을 위한 越境은 一時的인 것이 主目的이었으리라고 생각되나, 罪質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假裝한 境遇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後代 特히 19世紀의 中期에는 農民의 計劃的인 移住가 많았고, 그것은 거둬지는 凶作과 過重한 搖役, 租稅, 調兵 때문이었다. 많지는 않으나 犯罪者가 逃避한 境遇도 있고 또 淸人들에 拉致된 경우도 있다.

附言할 것은 朝鮮人の 越境과 반대로 淸人이 朝鮮에 들어오는 境遇도 매우 많았으며 앞의 19번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朝鮮의 西北地方에 들어와서 居住하는 일이 많았다. 그 밖에 中國의 船舶이 漂着한 例는 매우 많으며, 그 중에서 一部 中國人은 殘留하는 일도 있었다.

V. 1880년 전후 韓人의 間島거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韓人의 滿州 移住의 第二期에는 移住하여 定着하는 韓人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事實은 充分히 추측된다. 그러나 當時의 定着 狀況을 實證할 수 있는 記錄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後代의 調査資料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19世紀 前期의 移住에 關하여 日本의 總督府 臨時派出派가 1910년에 出版한 「間島産業調査書」에는 1880년 前後의 歸化 韓人의 例와 移住한 領域別 移住 年代가 記錄되어 있다.

먼저 歸化 韓人의 地域別 姓氏와 移住年·所有耕地面積을 例記하면 다음과 같다(同書 p.30)

北崗布爾哈通上流土門子	崔氏(穩城)	1870	46향
同	韓氏(慶源)	1869	15
東朝陽河河東	溫氏(本姓朱, 鐘城)	1869	45
南崗六道溝口子	王氏(淸人養子, 慶源)	1868	60
鐘城間島三洞	金氏(鐘城)	1880	120
嘎呀河流域牧丹川	王氏(穩城)	1868	25
同小磐領東	陳氏(會寧)	1879	31
西崗虛來城	李氏(不明)	1874	20

이 歸化 韓人들은 淸國人으로 自處하여 生活 風俗이 전혀 淸人에 準하여 淸語를 專用하고 韓人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同胞에 대하여 오히려 暴惡 驕慢한 者가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들의 住地를 보면 朝鮮에 近접한 鐘城間島 뿐만 아니라 南崗과 西崗 그리고 朝鮮에서 가장 먼곳인 北崗이나 가야하 流域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布爾哈通河는 지금의 延吉市 남쪽을 흐르는 강이며 六道溝는 龍井이다. 出身地는 不明의 1人을 除外하고 모두 咸鏡北道の 豆滿江 流域이며, 移民年代는 1868年에서 1880年까지로서 상당히 일찍 移住한 者들이다. 所有耕地도 15향에서 120향까지로 많은 土地를 갖고 있었다.

다음에는 歸化하지 않은 韓人들의 居住地와 出身地, 移住年을 들겠다(同 書 pp.32-37, 1909年조사). 居住地 별로 주로 移住年代가 빠른 곳만 摘記하겠다.

北崗	大延吉河地方	鏡城 · 鐘城 · 明川	1905
同	壹良(依蘭)溝	明川 · 鐘城 · 端川 · 富寧 · 利源	1900
西崗	四道溝 黃直	戊山	1895
同	黃坪	明川 · 戊山	1892
南崗	龍井村	會寧 · 鐘城 · 鏡城 · 富寧	1885
同	東盛湧下村	吉州 · 明川 · 鏡城 · 富寧	1889
同	老房子	會寧 · 戊山	1886
同	花田坪	鐘城 · 會寧 · 富寧	1879
戊山間島	南坪	明川 · 戊山 · 吉州 · 富寧 · 鐘城	1870
同	東京台	戊山 · 鏡城 · 富寧	1879
同	咸朴洞上村	鏡城 · 會寧 · 戊山	1884
會寧間島	飯山下村	會寧 · 鏡城 · 明川 · 戊山	1882
同	南尙洞	會寧	1884
鐘城間島	岳沙坪	吉州 · 鐘城 · 明川 · 鏡城	1873
同	湖川浦	鐘城	1879
同	三屯子洞	鐘城	1872
嘎呀河流域	牧丹川	鐘城 · 富寧 · 吉州 · 鏡城 · 慶興	1900

地域別로 移住가 빠른 곳부터 列擧하면 戊山間島·鐘城間島·南崗·會寧間島·西崗·北崗·가야하 流域의 順이 된다(穩城間島는 調査에서 빠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 豆滿江에 近접한 곳에 移住한 年代가 빠르고, 먼 곳의 移住가 늦은 것은 當然한 現象이라고 하겠다 (南崗地方의 移住가 빠른 것은 南崗의 花田坪이 鐘城間島와 바로 近接하고 있기 때문이며, 花田坪 이외의 다른 地點의 移住年代는 會寧間島보다 늦다). 처음의 3地方의 移住年代는 1870年代이며, 會寧間島는 1880年代, 그리고 移住가 늦은 3地域은 1890年代에서 1900년에 걸쳐서 移住가 始作되었다.

淸에 歸化한 韓人들의 年代가 앞에 든 바와 같이 1860年代에서 1880年代에 걸친 것이었음에 비하여 一般 韓人들의 移住는 그보다 늦다.

또 歸化韓人의 出身地는 앞의 例로서는 모두 豆滿江 沿岸이었는데, 一般 韓人의 出身地는 沿岸, 즉 六鎭을 비롯하여 그 南方의 鏡城·明川·吉州·端川 等도 상당히 많다. 여기서 나타난 바로씨는 다 咸鏡道의 端川 以北이다.

歸化한 韓人과 一般 移住 韓人을 綜合하여 보면 지금 延邊地方에 대한 韓人의 移住定着은 1860年代 末期에 始作하여 1870年代에는 豆滿江 接境 地帶의 各地에 移住하고 19世紀 末에는 延邊의 거의 모든 地域에 擴散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韓人의 越江 移住는 淸이나 朝鮮 政府의 公的인 移住禁止, 즉 犯越 禁止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犯越 禁止는 사실상 空文化하여 갔다.